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6년만에 반등 '재도약'

올 연간 목표 191만TEU 초과 달성
2018년 이후 감소세서 상승 전환
유럽·미주 등 신규 항로 유치 성과
광양항 활성화 위한 정책 개발 필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물동량이 6년 만에 반등하면서 올해 연간 목표였던 191만TEU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1월말 기준 164만TEU로, 153만TEU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반등하고 있다. 공사 또한 올해 목표였던 191만TEU를 넘어선 200만TEU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연중 360일 이상 하역작업이 가능한데다 16m에 달하는 깊은 수심을 통해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최대 30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부두다.

그러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0만8000TEU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2019년 237만8000TEU로 -1.2%, 2020년에는 215만9000TEU를 기록하며 -9.2% 감소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212만5000TEU로 또다시 -1.6%, 2022년에는 186만4000TEU로 무려 -12.2% 급감했다. 2023년에는 186만3000TEU를 기록하며 -0.1% 감소하는 등 2018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공사는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 공동 운항 협정으로 연결된 대형 선사들의 집합체인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을 앞두고 영업 활동을 강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실제 공사는 MSC, 머스크, CMA-CGM 등 굴지의 선사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전개해 유럽·미주 등 7개 신규 항로를 유치했다.

공사는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2층 국제회의장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별 대책 방안 및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도명 동아대 스마트 물류연구소 박사가 광양항 특수화물 컨테이너 관련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동진 로지스틱스 팀장은 '컨테이너 뉴 포지셔닝 전략'을 주제로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도덕희 한국해

양대 총장은 '친환경 스마트 컨테이너와 플랫폼'을 통해 ES컨테이너의 개념 설명 및 차별·경제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얼라이언스 변화 및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여수·광양항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광양항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양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올해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129개 기업 협약...조기투자 4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가산

광주시가 올 해 동안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투자유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우수 지자체 특전으로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금이 상향돼 다른 지자체보다 5% 많은 70%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수도권 제외 광역지자체를 광역시와 광역도로 분리해 투자유치 실적, 투자수행 실적, 사업이행관리, 유치기업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주시는 올해 12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1년 안에 조기 투자한 비율이 47%에 달하는 등 우수한 투자유치 실적과 함께 투자기업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적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도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22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등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평동산단에 자동차 부품기업 2개사가 9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행했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한 2개 기업은 1300억원 규모의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모빌리티·에너지·인공지능 분야에 외국기업 3개사는 총 582만달러 규모의 투자처로 광주를 선택했다.

광주시는 미래차·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선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11월 빛그린국가산단 68만6797㎡(20만7000평)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만3560㎡(15만8000평)가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돼 투자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북구 의료특화산업단지,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을 최첨단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해 투자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김영록 도지사 여수 석유화학기업 위기대응 현장 간담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여천NCC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위기대응 현장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영

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광주시에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5일 광주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 2월께 시민 의견조사 결과, 현금이용률 등이 등을 종합검토한 뒤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의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현금이용률이

2023년 2.3%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2.1%로 점차 감소하고, 현금 정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운행 지연, 운행 중 거스름돈 교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에 따라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 도입을 계획,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카드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조합, 노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홍보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현금 탑승비율이 높은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학교 등에서 교통카드 발급 절차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을 위해 내년 1월 'G-패스' 개통에 앞서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현금처럼 현금함을 운영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현금함을 없애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선불·신용·체크) 결제와 자동이체만 가능해진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내에서 선불교통카드 판매를 병행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